

본당 소식

♣ 말씀 KEY WORD

- '나를 따라오너라(데우테 오피소 무) :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직영하자면, '나의 뒤로 오라'는 말씀인데 이 초대 말씀에는 두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복음 앞부분에 언급되는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곧 이방인을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어쩌면 낯선 타인과 불편한 세상을 향해 제 것을 조금 덜 움켜쥐는 법을 배우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 2026년 새해 맞이 대청소

- 1월 25일 (금일), 미사 후

♣ 회의 / 모임

- 청년 회의 : 2/1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사목 회의 : 2/8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06.00€ • 교무금 950.00€

전례 성가

입당 : 421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봉헌 : 221 (받아주소서)

성체 : 180 (주님의 작은 그릇)

178 (성체 앞에)

파견 : 472 (주님 저 하늘 펼치시고)

전례 봉사

이번 주일(1월 25일)	다음 주일(2월 1일)
1독서: 박건욱 레오	1독서:
2독서: 이소현 엠마	2독서:
복 사: 정아인 레나 / 변가인 헬레나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6년 1월 25일

(녹) 연중 제3주일(하느님의 말씀 주일, 해외 원조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
○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보는 것이라네.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제1독서 (이사야서 8,23ㄷ-9,3)

23 옛날에는 즈불론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이다. 9,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2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3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멘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1,10-13,17)

10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11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12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7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
네. ◎

복음 (마태오 4,12-23)

12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래아로 물러가셨다.

13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카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14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15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래아,

16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17 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18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9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20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1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대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22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23 예수님께서서는 온 갈릴래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을 되새기는 교회를 살피 주시어, 주님 말씀을 따
르고 그 말씀으로 기도드리며 그 말씀이 삶의 양식이며 희망의 원천이 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
을 올바로 깨닫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해외 원조 주일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몸과 마음의 건
강을 지켜 주시며,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인류의 공동선을 이루게 하소
서.

4.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굽어살피시어,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깊이 생
각하고 주님을 향한 신심을 키우며, 참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삶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